

國立博物館에서는 考古美術研究資料誌로서 美術資料를 發刊하기로 되어 지난 八月末日 그 第一誌가 나왔다. 全誌 아—트紙 表紙 共二十八面、金載元外六人の 論考가 실려 있고 그 밖에 雜報、黑白寫眞 三十五枚가 登載되어 있다.

(乙西文化社發行·非賣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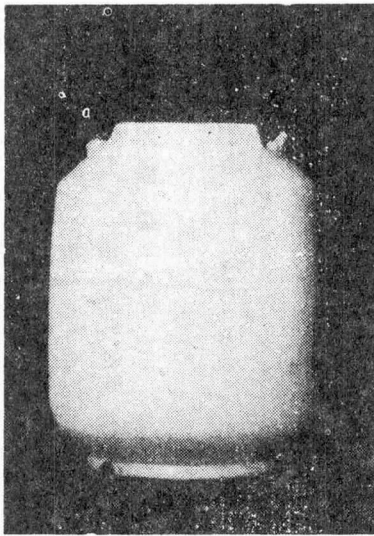
—第一卷 第三號 通卷 三號—

# 『나리항』

## 全 鑿 罏

最近 筆者가 入手한 李朝磁器中 異例의 在銘白磁壺가 하나 있다.

俗稱 『백매항아리』라고 부를 수 있는 典雅한 圓筒形의 항아리로서 아랫도리 直徑이 윗도리 보다若干 넓어서 듬직한 安定感을 주고 있으며 굽다리가 알맞게 얇은 대신 壺口는 비교적 勻厚하게 솟아나서 약간 밖으로 입천이 벌어져 있다. 이렇게 氣品있고 安定된 形態는 素文으로 된 畵蓄있는 白磁釉調에 잘 調和되어 一種의 簡古하고도 靜溢한 感覺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항아리의 굽다리 안에 아홉자의 鐵砂로 쓴 한글銘文이 있는 것이다. 卽 굽다리 圓 안에 서술로



「나동(第一行)

김서방딕(第二行)

드리항(第三行)」

이라고 또박 또박

쓰여져 있는데 이것

을 漢字로 고쳐 써

보면 「駱洞 金書房

宅茶禮缸」

이라고 볼 수 있

을 듯도 하지만 다

른 說에 依하면 에

전에는 山中의 貴物

인 「다래」를 親知나

先輩에게 贈物하기 위

하여 그 容器로서 此

種 맞춤 砂器를 使用

했다고도 한다. 이 銘

文에 나오는 駱洞은 옛

서울 南村의 한 洞名

으로서 「首善全圖」에

보면 儲慶宮이 있던 小

公洞 맞은 전에 明禮

坊과 隣接해 있던 洞

名으로 現在로 보면 아

마 中央郵遞局 一帶가

아닌가 생각된다. 이 駱洞에 사는 金書房이 누구이었는데는 알 道理가

없으나 이상에 駱洞에는 將臣들이 모여 살았다고도 하며 또 安東金氏들

이 많이 살았다고 하니 或是 아직 벼슬자리에 任官하기 前인 어느 金氏

家主人이 다래를 넣어 여기 저기 선사하려고 註文해서 만든 맞춤 砂器의

一種이 아닌가 짐작해 볼지도 한 일이다.

이 항아리의 格으로 보나 또 釉胎 等의 精選된 품으로 보나 廣州分院

官窯産의 註文品이었을 것은 勿論이며 그 當時 一般家庭에서 日常 쓰던

그릇이 아니었으리라고 짐작된다.

現在 壺口가 一部 깨어진 데가 있고 굽다리 둘레에도 약간의 흠이 있으

나 釉調는 매우 좋은 格調를 보존하고 있으며 길이로 항아리의 半部는

窯變으로 생긴 질은 白色이 一種의 韻致를 이루고 있다.

항아리의 全體 높이는 二一·八cm、最大 直徑은 一七·三cm이며 口徑

은 一一·八cm、굽다리 徑은 一一·五cm、壺口의 높이는 二cm이며 時代

는 十八、九世紀之間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.

